

2018 한국자유총연맹 10대 뉴스

국리민복(國利民福)과 함께한 2018 한국자유총연맹



제17대 박종환 총재 취임

자총은 4월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본부임원, 시·도지부장 및 시·군·구지회장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박종환 총재 취임식'을 열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선포했다.

'초·중등 교과서 자유삭제 반대'

자총은 7월 12일 세종시 여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본부 및 세종·충남지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가들은 자총 핵심회원 10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치중립심사평가위원회 발족

자총은 9월 28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자총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공정성 확보 계기를 마련키 위해 '정치중립심사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임성학, 서현진, 최준영, 한정훈 씨가 각각 위촉됐다.



'한반도 숲 가꾸기' 추진단 발족

자총은 12월 6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박종환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한반도 숲 가꾸기' 추진단을 발족했다. 앞으로 자총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북한의 자연환경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 지지

박종환 총재와 본부 임·직원, 17개 시·도지부 회장들은 4월 30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광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자유센터 정문과 전국 시·군·구지회를 비롯한 주요 거리에 판문점 선언지지 현수막을 걸었다.



2018 유공회원 포상식

자총은 10월 2일 서울 자유센터 야외광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유공회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리민복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유공자 150여 명이 국민훈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을 받았다.



제9회 DMZ국토대장정 성료

자총은 8월 6~14일 '제9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국토대장정'을 갖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장정 참가자들은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휴전선 250km를 횡단하며 안보의식을 다졌다.



'이슈와 통찰' 발행

자총은 10월 31일 사회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담은 정책연구보고서 '이슈와 통찰'을 발행했다. '이슈와 통찰'은 매달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연구보고서로 구성되고 학술단체와 지방조직에 배포된다.



KFF글로벌봉사단 해외봉사

제17기 KFF대학생글로벌리더 해외봉사단이 8월 20~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해외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리랑요양원에서 고려인 동포 1세대들에게 '한국어 교육', '어르신 물리치료', '요양원 환경정비', '텃밭조성' 등 다양한 봉사를 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은 10월 30일을 전후해 전국 54개 시·군·구지역 호국보훈시설에서 '2018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엄수했다. 자총은 1981년부터 매년 을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일(10.30.)을 기해 자유수호에 힘쓰다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